

책자형선거공보

더불어
민주당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선거
영도구 제2선거구 동삼동, 청학2동

영도 대전환!!

해양관광특별자치구로~

-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 졸업
- 부산항보안공사 부사장(前)
- 한국해양대학교 겸임교수(前)
- 오션통신산업대표(現)



1 박상현

[별지 제17호서식의(다)]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부산광역시의회의원선거 (영도구제2선거구)

1. 인적사항

기호	소속정당명	후보자성명	성별	생년월일 (세)	직업	학력	경력
1	더불어민주당	박상현	남	1961.01.05. (65세)	오션통신산업 대표	한국해양대학 항해학과 졸업	(전)부산항보안공사 부사장 (전) 한국해양대학교 물류시스템 공학과 겸임교수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산상황(천원)					병역사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배우자	18세이상 직계비속
410,000	270,000	0	0	장남:140,000 손녀1:없음 손녀2:없음	해군 소위 (복무만료)	해당없음	-장남:육군 병장(만기전역)

3. 세금 납부, 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최근 5년간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후보자 전과기록
구분	납세액	체납내역		
		체납액 누계 (완납일자)	현 체납액	
계	51,574	0	0	-공직선거법위반:벌금 1,500,000원(2006.05.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 1,500,000원(2016.09.27)
후보자	51,574	0	0	
배우자	0	0	0	
직계존속	0	0	0	
직계비속	0	0	0	

4. 소명서

--

영도 대전환!!
박상현은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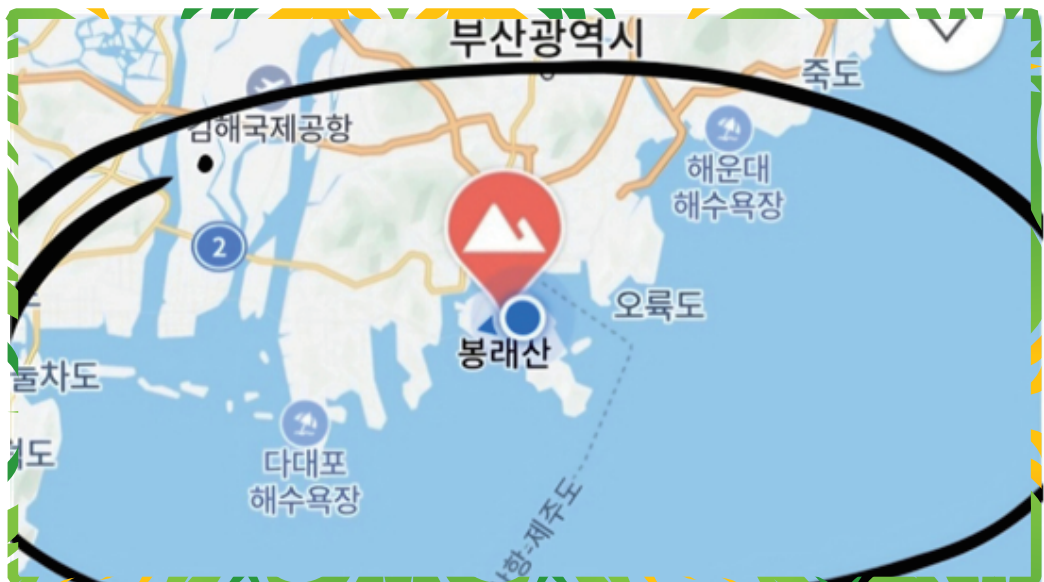
잃어버린 30년~ 해양관광특구로 되찾아오겠습니다!



2000년 초반 활기찼던 태종대 곤포의 집 전경~



2026년 5월, 현재 쓰레기로 뒤엉켜진 태종대 곤포의 집~



부산 바다를 포함하면 부산시의 중심은 영도입니다!

영도 대전환!! 박상현은 합니다!

어르신 대중 교통비 지원이냐!

마을버스 공영화냐!



부산시 16개 구, 군 에서 현대적 교통수단은 도시철도/지하철
혜택을 직접 받지 못한 지역은 영도구가 유일하며,
자산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지하철 1~5호선 건설에 투입된 국비와
부산 시비가 약11조 원을 웃돌고,
매년 운영 적자로 인한 부산 시민 세금 지원액이
2025년만 하더라도 3,000억 원이며,

**역세권으로 인한 재산권 이익은 둘째고
같은 세금을 내고
추가 교통비와 생활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해야 하고,**

영도에 10년 내 도시철도가 들어올 계획도 없고,
실현도 불가능하므로 건설될 때까지, 부산시 조례를 통하여
영도 어르신 대중 교통비를 지원하거나
영도 마을버스 전면 무료화하여
관광객도 유치하고,
더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분이 너무나도 타당합니다!

영도 대전환!! 박상현은 합니다!

버려진 땅을~
살아있는 공간으로!



10년 넘게 방치된 유휴지~



주차장 추진 중/청학문화센터 계획~

쓰레기와 불법투기로 방치되던
청학동 유휴부지.
주민들과 함께 해결책을 찾고,
주차난 해결을 위한 공간으로
하나씩 바뀌가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동네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바다 조망과 영도만의 특색을 살려
게스트하우스, 청년창업공간,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동삼,청학 전망 좋은 고지대~



영도 게스트하우스 가상도~

영도의 바다를

다시 성장동력으로!



폐선, 잡선이 쌓인 봉래동 물량장~



요트의 요람~ 부산항대교 하부 계획도~

“바다를 가진 도시 영도,
왜 아직도 멈춰 있어야 합니까?”

해운대, 광안리처럼
영도도 바다를 이용할 줄 아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해양관광.레저.해양산업 중심지로 바꾸겠습니다!

영도의 바다가
청년의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의 힘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영도 대전환!!
박상현은 합니다!

영도가 폐섬이 될 수 없다!

부산시 현안에서 계속 뒤로 밀리는 영도~ 제가 바로 세우겠습니다!



영도는 더 이상
멈춰 있어서서는 안 됩니다.
방치된 사업은 다시 움직이고,
사라진 학교의 자리는 미래 산업과 일자리로 채우겠습니다.

부산의 변방이 아닌,
부산의 핫플레이스 영도를 만들겠습니다!

해양관광특별자치구로~

1924년생 만 102세 장모님을 모시고 산 지 벌써 7년이 넘어갑니다~

녹과 페인트
범벅인 채 평생을
살아오신 대평동
'깡깡이 아지매'

베인 커피믹스와
컵라면을 지금도 즐
겨 드시는 모습을
보며, 오래 버텨오신
삶의 무게를 느꼈습
니다.



한집에 살면서도 제가 시의원 후보로 출마한 줄조차 모르실 만큼
치매가 깊으시고, 방 안에는 오랜 세월의 생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
니다. 하지만 주변 어르신들의 건강을 먼저 걱정하시던 따뜻한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며 만난 영도 주민들의 축 처진 어깨와 힘겨운 눈빛 앞에서
측은지심으로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정치가 모든 어려움을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주민들에게 작은 희망 하나는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 박상현은 말보다 행동으로~
영도를 다시 일으키는 대전환의 진심 정치를 하겠습니다!

박상현은 합니다!!

-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 졸업
- 전) 열린우리당 영도구 창당위원장
- 전) 부산항보안공사 부사장
- 전) 한국해양대학교 물류학과 겸임교수
- 전) 이재명선대위 공공기관이전 추진단 부단장
- 현) 오션통신산업 대표

<박상현 후보,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http://youtube.com/@yeongdogu> [▶영도맨] 검색